



연예계 대표 노총각 박수홍
23세 연하 신부와 혼인신고

4년 열애... "어려운 상황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

'연예계 대표 노총각'인 개그맨 박수홍(51)이 결혼했다.

28일 박수홍은 SNS를 통해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가에 따르면 박수홍의 신부는 23세 연하인 1993년생으로, 두 사람은 4년간 사랑을 키워왔다. 올해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 신접살림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수홍은 "어려운 상황에도 제 곁을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이라고 아내를 소개했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은 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최근 급전 문제로 친형 부부와 법적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더욱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0여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한 친형과 형수가 100억원가량 출연료와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며 최근 이들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부부의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박수홍은 "이제는 가장으로, 남편으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반려묘 다홍이의 아빠로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겠다"면서 "그간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느라 고생했던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잘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수홍은 현재 방영 중인 JTBC '알짜왕',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에 이어 다음달 KBS 2TV 예능프로그램 '베프타민'의 진행자로 나선다. 반려묘 다홍이와 일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계정 '검은 고양이 다홍'도 운영 중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52년 트로트 인생' 한 권의 책으로 풀어낸 작사·작곡가 김동찬



작사 김동찬(왼쪽에서 세 번째 앉은 사람)이 22일 경남 거제시 거북백병원에서 저서 '트로트 이야기' 출간기념회를 열고 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동찬 제공

"트로트는 인생을 3분 안에 담은 드라마죠"

넌박자·동지 등 쓴 히트곡 메이커 평생 걸어온 '트로트 이야기' 발간

"지금 트로트 최고 전성기라 생각 가슴 울리는 노래가 많이지길 바라"

"사랑 선고" 직전에 있던 트로트시장에 지난해 한 경연프로그램이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이미 이전에 산소호흡기를 매달아주어 끈질기기도 힘겹게 숨길을 놓지 않게 한 주역이 있다. 작사·작곡가 김동찬(72)이다.

1969년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현철의 '봉선화 연정', 남진의 '동지', 송대관의 '넌박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며 지나온 반세기기를 짊어졌다. "트로트 한 곡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그가 자신과 한평생 함께 걸어온 트로트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최근 그가 펴낸 '트로트 이야기'는 600페이지가 넘는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마저도 털어내느라 애를 먹었다.

제목이 '뽕짝'이 될 뻔한 '넌박자'부터 학창시절 첫사랑을 떠올리며 쓴 '봉선화 연정' 등 노랫말에 얽힌 사연은 물론 '기동찬(김동찬) 사나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국민MC' 송해 등 가요계 안팎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몇 편의 토크쇼를 떠올리게 할 만큼 다채롭게 담았다.

"사람마다 가슴 속에 응어리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한이 서려 있죠. 그 한을 달랠 수 있는 게 그나마 트로트에요. 트로트가 4분의4 박자잖아요. 심장이 뛰는 소리와 같아요. '쿵닥쿵닥!', '쿵작쿵작!' 그래서 트로트를 '뽕짝'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생명의 소리를 담아서 트로트가 삶의 공간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너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김동찬은 전통가요 작사가로는 유일하게 2016년 KBS 2TV '불후의 명곡'을 자신의 노래로 채웠다. 이듬해에는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도 펼쳐 화제를 모았다. 1989년 KBS 밝은노랫말상을 비롯해 1990년 한국노랫말대상 전통노랫말

상, 1999년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로 KBS 우수프로그램 음향효과상 등을 수상했다. KBS 1TV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2008년 예세이 형식의 자서전 '넌 박자, 동지 그리고 봉선화 연정'도 펴냈다.

"경연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 트로트는 거의 죽어 있었어요. 지난해 다시 살아나면서 새로운 얼굴도 탄생했고, 붓물 터지듯 열풍이 생겨난 거죠. 하지만 열풍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쉽게 뜨거워진 열은 쉽게 식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엔 깊이 있는 노래보다 행사 위주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노래가 많아져 아쉽긴 하지만, 그것 역시 트로트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트로트도 변해야죠. 그래도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소설가가 작가가 하나의 소재로 이야기를 펼쳐가는 마법사라면, "작사가는 긴 이야기를 짧게 압축하는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고 했다.

"트로트가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긴 인생 이야기라도 3분 안에 담아야 해요. 3분 드라마인 셈이죠. 가사

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녹이느냐가 관건이에요. 저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살아온 인생을 노래에 담고 싶어요. 지금도 400곡정도 써놓았는데, 다양해요."

그의 손에서 탄생한 곡은 남녀노소가 리지 않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히트곡이 됐다.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배일호의 '신토불이', 최진희의 '사랑의 향기', 태진아의 '애인' 등 셀 수도 없다. 노래방 애창곡으로도 1·2위를 다투는 곡들이다. 자연스럽게 저작권료에 호기심이 갈 정도다.

"하하하! 다들 그쪽으로 관심이 많더군요.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불러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전까지만 해도 '동지', '봉선화 연정', '넌박자' 등 순으로 많이 (저작권료)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랑의 이름표'는 의외로 영화나 CF에 많이 사용돼서 인기였고요. 최근에는 장민호가 '상사화'를 다시 불러서 됐어요. 현철의 '확실합니다'는 선거를 겨냥해 만든 로고송인데, 예상만큼 터지지 않았네요. (웃음)"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암 보험, 걱정 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칠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텝가미솔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 증정!

[이벤트기간: 2021.01.01 ~ 2021.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20만 이상 납입 시 이벤트 참여 가능
* 배상금 상환으로 후속 6주 소액 10만 배 한도
* 일시금 지급 시 10% 수수료 부과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금 30%까지 지원
* 조기 종결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 가입 후 90일 이내 보험금 지급 시 10% 할인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알반케어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함
* 일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 Aflac 생명보험 주식회사